

## 5. M&A 및 IPO

### 〈글로벌동향〉

- ◆ 2018년 3/4분기중 글로벌 M&A는 미국 증시 호조와 산업계 재편으로 거래건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초대형거래의 무산 등으로 거래규모는 감소
- ◆ 2018년 3/4분기중 글로벌 IPO 시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

###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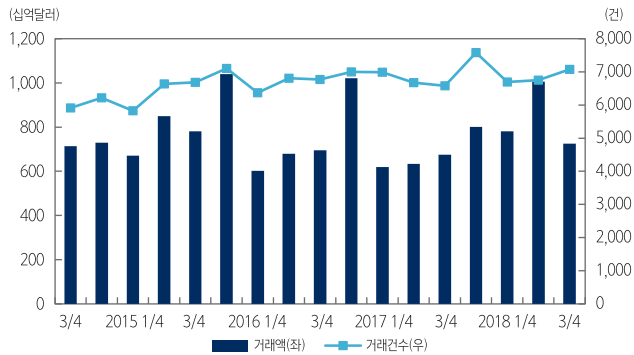
- ◆ 2018년 3/4분기중 국내 M&A 시장은 대형거래의 증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사의 사업 강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거래규모 증가
- ◆ 2018년 3/4분기중 국내 IPO 시장은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로 중소형 기업의 상장이 증가하여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전분기대비 증가

## 가. 글로벌동향

### 1) M&A 시장

- 2018년 3/4분기중 글로벌 M&A는 미국 증시 호조와 산업계 재편으로 거래건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초대형거래의 무산 등으로 거래규모는 감소
  - 2018년 3/4분기 글로벌 M&A 거래규모는 7,252억달러, 거래건수는 7,071건
    - 전분기대비 거래규모는 27.9% 감소, 거래건수는 4.8% 증가
    - 전년동기대비 거래규모와 거래건수는 각각 7.5%, 7.4% 증가
  - 동분기중 100억달러 이상 초대형거래의 공시가치는 1,648억달러(5건)로 전분기(3,137억 달러, 11건) 보다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 모두 감소
    - 미국 방송 사업체인 Sinclair의 Tribune 인수(39억달러), 미국 식료품 유통업체 Albertsons의 Rite Aid 인수(240억달러)건의 무산 등 초대형거래 4건이 무산

글로벌 M&A 시장 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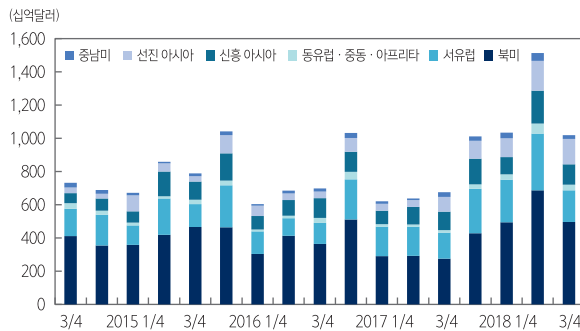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지역별로는 전지역에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로는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

— 동분기중 인수대상지역 기준 거래규모는 북미 4,957억달러, 서유럽 1,907억달러, 선진 아시아 1,516억달러, 신흥 아시아 1,241억달러, 동유럽·중동·아프리카 338억달러, 중남미 228억달러 순

- 전분기대비 선진 아시아(-16.0%), 북미(-27.7%), 신흥 아시아(-36.9%), 서유럽 (-44.2%), 동유럽·중동·아프리카(-45.5%), 중남미(-51.2%) 감소
- 전년동기대비 동유럽·중동·아프리카(110.6%), 북미(79.7%), 선진 아시아(71.5%), 서유럽(22.8%), 신흥 아시아(11.7%)는 증가하였으나, 중남미(-20.2%)는 감소

글로벌 M&A 지역별 현황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중 상위 10개 M&A 거래의 공시가치는 1,648억달러로 전체 거래의 22.7% 차지

- 동분기중 최대 거래는 미국 에너지 업체 Energy Transfer Equity, L.P.의 Energy Transfer Partners, L.P. 인수이며, 공시가치는 593억달러
- 싱가포르 반도체 업체인 Broadcom Inc.의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CA Technology 인수가 공시가치 181억달러로 2위를 기록
- 3위 거래는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인 CK Infrastructure Holdings의 호주 에너지 업체 APA Group 인수로 공시가치는 164억달러

상위 10개 글로벌 M&A 거래목록(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백만달러)

공시일	기업명		공시가치	주관사	
	인수대상 (국가/업종)	인수기업 (국가/업종)		인수대상기업*	인수기업
2018. 08.01	Energy Transfer Partners, L.P. (미국/에너지)	Energy Transfer Equity, L.P. (미국/에너지)	59,300	Barclays	Citi
2018. 07.11	CA Technology (미국/소프트웨어)	Broadcom Inc. (싱가포르/반도체)	18,128	Qatalyst Group	BofA ML/ Barclays/ Citi/Deutsche Bank/JP Morgan/ Morgan Stanley/ Wells Fargo
2018. 08.13	APA Group (호주/에너지)	CK Infrastructure Holdings (홍콩/부동산 개발)	16,365	JP Morgan/Macquarie Group	Morgan Stanley
2018. 07.03	Wind Tre (이탈리아/이동통신)	CK Hutchison (홍콩/유통)	14,149		Goldman Sachs/Moelis & Co
2018. 07.27	Petrohawk Energy (미국/에너지)	BP (영국/에너지)	10,500		Morgan Stanley/Robey Warshaw/UBS

상위 10개 글로벌 M&A 거래목록(2018년 3/4분기 기준)(이어서)

(단위: 백만달러)

공시일	기업명		공시가치	주관사	
	인수대상 (국가/업종)	인수기업 (국가/업종)		인수대상기업*	인수기업
2018. 07.31	Forest City Realty Trust (미국/부동산 투자)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 (캐나다/대체투자 운용)	9,732	Goldman Sachs/Lazard Ltd/Morgan Stanley	BofA ML/ Barclays/ BMO Capital Mkts/CIBC/ Citi/Deutsche Bank/Moelis & Co/RBC Capital
2018. 09.04	Choice Properties REIT (캐나다/부동산 투자)	George Weston Ltd. (캐나다/유통)	9,280		TD Securities
2018. 09.18	Enbridge Energy Partners, L.P. (미국/에너지)	Enbridge Inc. (미국/에너지)	9,240	Evercore Partner/ Goldman Sachs	BofA ML/ Scotiabank
2018. 08.14	Energen (미국/에너지)	Diamondback Energy (미국/에너지)	9,163	JP Morgan/ Tudor Pickering	Citi
2018. 08.24	Colorado National Bancorp (미국/금융)	개인 투자자	8,970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2) \*의 경우 인수대상기업 및 매도단의 자문사임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중 M&A 재무자문사 순위는 Citi, Goldman Sachs, Barclays가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Moelis & Co, UBS, Evercore Partners Inc.는 순위권으로 신규 진입

- Citi는 Energy Transfer Equity, L.P.의 Energy Transfer Partners, L.P. 인수 등 59건의 거래를 주관하여 전분기 5위에서 1위로 상승
- JP Morgan은 CK Infrastructure Holdings의 APA Group 인수 등 59건의 거래를 주관하였으며 전분기 1위에서 동분기 4위로 하락
-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의 Forest City Realty Trust 인수를 주관한 Moelis & Co는 전분기 30위에서 동분기 8위로 상승

글로벌 M&A 재무자문사 순위(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억달러, 건)

순위	자문단	전분기 순위	총거래가치	평균 거래가치	거래 건수	주요 거래
1	Citi	5	163,471	2,771	59	Energy Transfer Equity, L.P.의 Energy Transfer Partners, L.P. 인수 Broadcom Inc.의 CA Technology 인수 등
2	Goldman Sachs	3	142,525	2,096	68	CK Hutchison의 Wind Tre 인수, Marsh & McLennan companies의 Jardine Lloyd Thompson Group 인수 등
3	Barclays	9	138,468	3,077	45	Broadcom Inc.의 CA Technology 인수,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의 Forest City Realty Trust 인수 등
4	JP Morgan	1	125,583	2,129	59	Broadcom Inc.의 CA Technology 인수 등
5	Morgan Stanley	2	122,560	2,228	55	CK Infrastructure Holdings의 APA Group 인수 등
6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6	104,373	2,546	41	Broadcom Inc.의 CA Technology 인수, Enbridge Inc.의 Enbridge Energy Partners, L.P. 인수 등
7	Deutsche Bank	13	59,614	1,923	31	Broadcom Inc.의 CA Technology 인수 등
8	Moelis & Co	30	50,413	1,575	32	CK Hutchison의 Wind Tre 인수 등
9	UBS	16	47,267	1,751	27	BP의 Petrohawk Energy 인수 등
10	Evercore Partners Inc	12	40,469	1,124	36	Hong Leong Co Malaysia Bhd의 Guoco Group. 인수 등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2) 순위는 거래가치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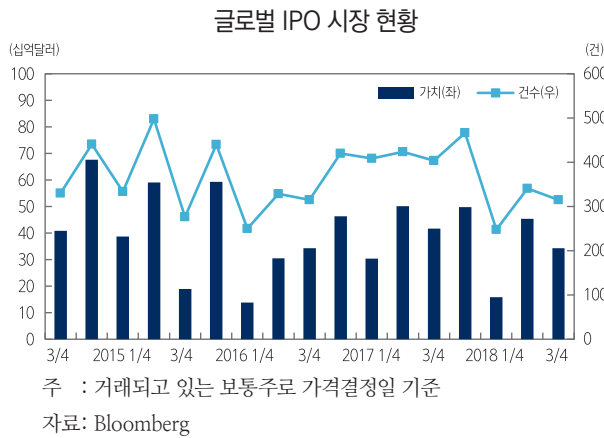
2) IPO 시장

□ 2018년 3/4분기 중 글로벌 IPO 시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감소

— 2018년 3/4분기중 글로벌 IPO 거래규모는 344억달러, 거래건수는 315건을 기록

- 전분기대비 거래규모와 거래건수는 각각 24.4%, 7.6% 감소
- 전년동기대비 거래규모와 거래건수는 각각 14.8%, 21.0% 감소

— 10억달러 이상 IPO는 동분기 5건(140억달러)으로 전체 IPO시장의 30.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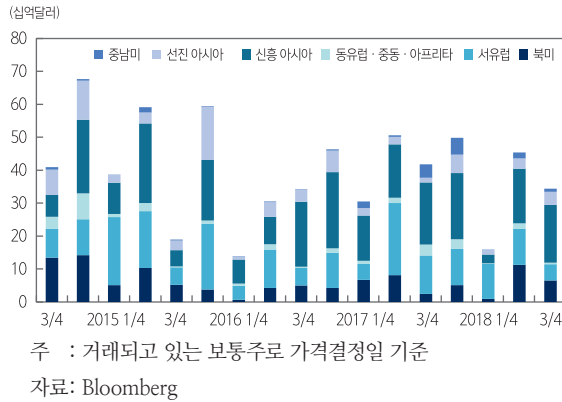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중 지역별 IPO시장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전분기대비 감소

— 동분기중 지역별 IPO 시장 거래규모는 신흥 아시아 176억달러, 북미 65억달러, 서유럽 49억달러, 선진 아시아 40억달러, 중남미 9억달러 순

- 전분기대비 선진 아시아(27.2%), 신흥 아시아(6.0%)는 증가한 반면 동유럽·중동·아프리카(-72.7%), 서유럽(-54.7%), 중남미(-50.8%), 북미(-42.6%)는 감소
- 전년동기대비 선진 아시아(191.3%), 북미(168.9%)는 증가한 반면 동유럽·중동·아프리카(-85.8%), 중남미(-78.5%), 서유럽(-57.8%), 신흥 아시아(-7.1%)는 감소

지역별 글로벌 IPO 거래규모



□ 2018년 3/4분기 상위 10개 IPO중 4건은 중국 소재 기업이며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4건으로 가장 많음

- 거래규모 기준 1위는 중장비 건설업체인 China Tower Corp Ltd.의 홍콩거래소 상장으로 74.9억달러의 자금을 조달
- 이외 중국 상장은 3건으로 식당업체인 Haidilao International Holding Ltd의 홍콩거래소 상장(9.6억달러), 의료제품 업체인 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의 선전거래소 상장(9.4억달러), 부동산관리 및 서비스업체인 E-House China Enterprise Holdings Ltd의 홍콩거래소 상장(6억달러)
- 금융업종은 4건으로 영국 사모펀드인 Smithson Investment Trust PLC의 런던거래소 상장(10.6억달러), 미국 부동산운용 및 개발업체인 Cushman & Wakefield PLC의 뉴욕거래소 상장(8.8억달러), 중국 부동산관리 및 서비스업체인 E-House China Enterprise Holdings Ltd의 홍콩거래소 상장(6억달러)

상위 10개 글로벌 IPO 거래목록(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백만달러)

공시일	기업명 (국가/업종)	상장 거래소	공모금액	주요 주관사
2018. 07.23	China Tower Corp Ltd (중국/건설)	Hong Kong	7,492	Agricultural Bank of China,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NP Paribas,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 China Merchants Securities, China Securities, China Merchants Bank, Goldman Sachs, HSBC, Industrial & Comm Bank of China, JP Morgan, Morgan Stanley, UBS
2018. 06.20	Viva Energy Group Ltd (호주/에너지)	ASE	1,956	Deutsche Bank,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UBS
2018. 09.03	SIG Combibloc Group AG (스위스/기계)	SIX Swiss Ex	1,762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UBS
2018. 08.02	Elanco Animal Health Inc (미국/의약)	New York	1,736	Cowen & Co, Evercore Partners Inc, Deutsche Bank, Credit Suisse, Citi, BNP Paribas, Barclays,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JP Morgan
2018. 09.04	Smithson Investment Trust PLC (영국/사모)	London	1,057	Investec
2018. 09.03	Haidilao International Holding Ltd (중국/소매)	Hong Kong	963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 Citi, China Merchants Bank, Goldman Sachs, UOB Kay Hian Pvt Ltd
2018. 03.30	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중국/의료)	Shenzhen	944	Bank of China, Huatai Securities
2018. 06.20	Cushman & Wakefield PLC (미국/부동산 운용)	New York	880	William Blair & Co LLC, Credit Suisse, Citi, Barclays,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UB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JP Morgan
2018. 07.02	E-House China Enterprise Holdings Ltd (중국/부동산 관리)	Hong Kong	597	BNP Paribas,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 China Merchants Securities, Citi, China Merchants Bank, Credit Suisse, Haitong Securities, Head & Shoulders Securities Ltd, HSBC, Industrial & Comm Bank of China, Juhui Financial Securities Ltd
2018. 09.03	Funding Circle Holdings PLC (영국/금융)	London	568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Numis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중 IPO 주관사 순위에서는 China Tower Corp Ltd의 홍콩거래소 상장을 주관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oldman Sachs, UBS, Morgan Stanley가 상위권 차지
  - China Tower Corp Ltd의 홍콩거래소 상장 등 다수의 대형거래를 주관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가 1위를 차지
  - SIG Combibloc Group AG의 스위스거래소 상장 등을 주관한 Goldman Sachs는 18건(7.5억달러)을 성사시켜 2위, Cushman & Wakefield PLC의 뉴욕거래소 상장 등을 주관한 UBS는 10건(1.1억달러)을 성사시키며 3위를 차지
  - Morgan Stanley, JP Morgan, Citi, Deutsche Bank는 전분기대비 하락
  - Investec, Bank of China는 전분기 각각 80위와 120위에서 동분기 10위권 내로 신규 진입

글로벌 IPO 주관사 순위(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건)

순위	자문사	시장 점유율	전분기		실적	거래 건수	가치	주요 거래
			순위	시장 점유율				
1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6.0	6	4.1	2,020	12	343	China Tower Corp Ltd의 Hong Kong상장, Viva Energy Group Ltd의 ASE상장 등
2	Goldman Sachs	6.0	5	4.7	2,010	18	752	China Tower Corp Ltd의 Hong Kong상장, SIG Combibloc Group AG의 SIX Swiss Ex상장등
3	UBS	5.3	10	1.7	1,760	10	113	China Tower Corp Ltd의 Hong Kong상장, Cushman & Wakefield PLC의 NSE상장 등
4	Morgan Stanley	4.8	2	6.3	1,620	14	636	China Tower Corp Ltd의 Hong Kong상장, Jiangxi Bank Co Ltd.의 Hong Kong상장 등
5	Investec	3.7	80	0.2	1,230	3	-	Smithson Investment Trust PLC의 London상장 등
6	JP Morgan	3.6	3	5.9	1,190	12	883	China Tower Corp Ltd의 Hong Kong상장 등
7	Citi	3.5	4	4.9	1,190	14	262	Haidilao International Holding Ltd의 Hong Kong상장 등
8	Huatai Securities	3.2	22	1.0	1,090	4	-	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의 Shenzhen상장 등
9	Deutsche Bank	3.0	8	3.5	1,010	6	157	Viva Energy Group Ltd의 ASE상장 등
10	Bank of China	2.9	120	0.1	973	4	-	China Tower Corp Ltd의 Hong Kong상장 등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 나.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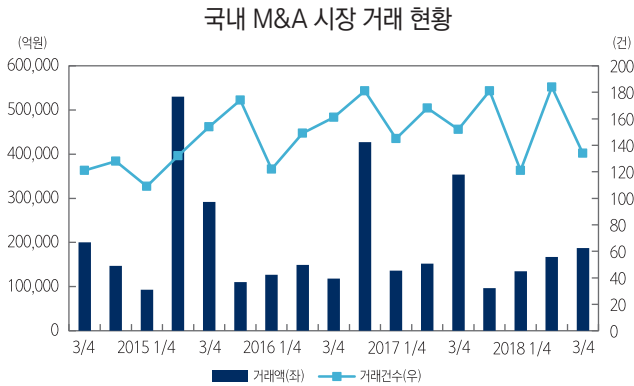
### 1) M&A 시장

□ 2018년 3/4분기중 국내 M&A 시장은 대형 거래의 증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사의 사업 강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거래규모 증가

— 동분기중 거래규모는 18.8조원, 거래건수는 134건으로 전분기대비 거래규모는 12.3% 증가, 거래건수는 27.2% 감소

• 전년동기대비 거래규모는 46.9%, 거래건수는 11.8% 감소

— 동분기중 1조원 이상 초대형거래는 6건이며 이 중 국경간거래는 3건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중 Out-In 거래와 In-Out 거래 모두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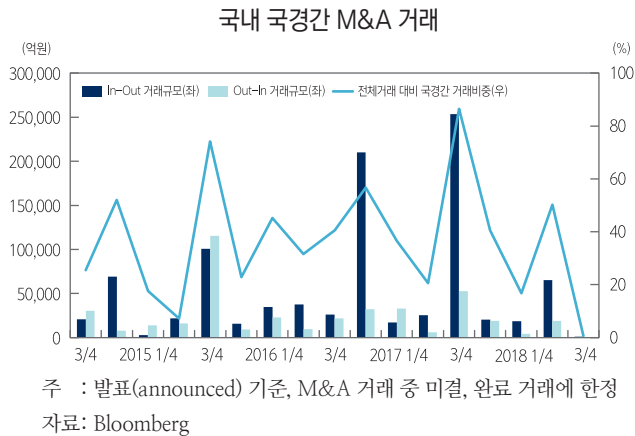
— 동분기중 국경간 M&A 거래규모는 1,0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7%, 전분기대비 98.7% 감소<sup>1)</sup>

• 동분기 국경간 M&A 거래건수는 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전분기대비 26.8% 감소

• 동분기중 전체 M&A 거래규모 대비 국경간 M&A 거래규모 비중은 0.6%로 전년동기대비 99.3%p, 전분기대비 98.9%p 감소

1) In-In 거래는 국내기업간 M&A, In-Out 거래는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 Out-In 거래는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M&A 거래로 정의

- 동분기 In-Out 거래규모는 93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6%, 전분기대비 98.6% 감소
  - In-Out 거래건수는 3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1.9% 증가, 전분기와 동일
  - 인수대상기업 소재지 기준 북미 10건, 신흥 아시아 8건, 동유럽·중동·아프리카 6건, 서유럽 4건, 선진 아시아 3건으로 구성
- 동분기 Out-In 거래규모는 1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8%, 전분기대비 99.3% 감소
  - Out-In 거래건수는 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7.4%, 전분기대비 54.5% 감소
  - 인수기업 소재지 기준 신흥 아시아 4건, 선진 아시아 3건, 서유럽 2건, 동유럽·중동·아프리카 1건으로 구성



- 2018년 3/4분기중 상위 10개 M&A 거래의 공시가치는 9.9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의 52.9% 차지
  - 동분기 최대 거래는 실리콘·쿼츠 사업 강화를 위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KCC 컨소시엄의 MPM 홀딩스 인수 건으로 동거래는 3.5조원 규모
  - 2위는 비은행 부문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2.3조원
  - 이외의 주요 거래는 홍콩 주거용 광역 네트워크 사업자인 HKBN과 MPK 파트너스, TPG 캐피털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진행한 WTT Holding Corp 인수(1.5조원), 한온시스템의 Fluid Pressure & Controls/Magna International Inc 인수(1.4조원) 등

상위 10개 국내 M&A 거래목록(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억원)

공시일	기업명		공시가치	주관사	
	인수대상 (국가/업종)	인수기업 (국가/업종)		인수대상 기업*	인수기업
2018. 09.13	MPM 홀딩스 (미국/화학)	KCC 컨소시엄 (한국/화학)	34,752	Goldman Sachs/ Moelis & Co	UBS
2018. 09.05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한국/보험)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	22,989		JP Morgan
2018. 08.07	WTT Holding Corp (홍콩/정보통신 서비스)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 (한국/사모)	14,938		Jp Morgan Sec Ap
2018. 09.20	Fluid Pressure & Controls/ Magna International Inc (캐나다/자동차&트럭부품)	한온시스템 (한국/자동차&트럭부품)	13,813		Evercore Partner
2018. 09.07	Rakhat JSC,Lotte Confectionery Holdings BV, Lotte Kolson Pvt Ltd (카자흐스탄/식품)	롯데제과 (한국/식품)	3,486		
2018. 09.06	CCP hf (아일랜드/소프트웨어)	펠어비스 (한국/소프트웨어)	2,525		
2018. 07.13	광주은행 (한국/금융)	JB금융지주 (한국/금융)	2,357		
2018. 08.08	대덕GDS (한국/전자)	대덕전자 (한국/전자)	1,845		
2018. 09.12	Uniseal Inc (미국/화학)	LG화학 (한국/석유화학)	1,500		Greenhill & Co
2018. 07.17	삼미식품 (한국/식품)	오투기 (한국/식품)	1,141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2) \*의 경우 인수대상기업 및 매도단의 자문사임

3) 부동산관련 거래 제외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중 M&A 재무자문사 순위에서 KCC 컨소시엄의 MPM 홀딩스 인수를 주관한 Goldman Sachs, Moelis & Co, UBS가 상위권을 차지

- KCC 컨소시엄의 MPM 홀딩스 인수와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WTT Holding Corp 인수를 주관한 Goldman Sachs가 1위를 차지
-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주관한 JP Morgan이 2위
- 삼성증권은 전분기 11위에서 동분기 8위로 상승
- Morgan Stanley은 전분기 1위에서 동분기 5위로 하락

국내 M&A 재무자문사 순위(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억원, 건)

순위	자문단	전분기 순위	총거래 가치	평균 거래 가치	거래 건수	주요 거래
1	Goldman Sachs	-	4,436	2,218	2	KCC 컨소시엄의 MPM 홀딩스 인수
2	JP Morgan	6	3,386	1,693	2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등
3	Moelis & Co	-	3,100	3,100	1	KCC 컨소시엄의 MPM 홀딩스 인수
3	UBS	-	3,100	3,100	1	KCC 컨소시엄의 MPM 홀딩스 인수
5	Morgan Stanley	1	2,050	2,050	1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등
6	Evercore Partners Inc	-	1,235	1,235	1	한온시스템의 Fluid Pressure & Controls/ Magna International Inc 인수
6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1	1,235	1,235	1	한온시스템의 Fluid Pressure & Controls/ Magna International Inc 인수
8	Samsung Securities Co Ltd	11	761	761	1	-
9	Greenhill & Co	-	134	134	1	LG화학의 Uniseal Inc 인수
10	PwC	-	90	22	4	BCH 페레그린파트너스의 한라엔컴 인수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 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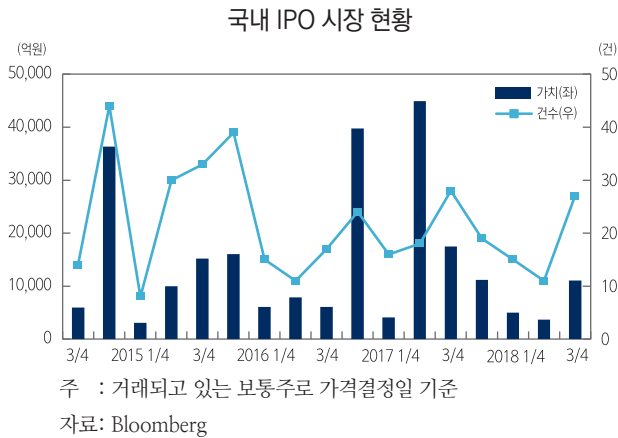
2) 순위는 거래가치 기준

자료: Bloomberg

2) IPO 시장

□ 2018년 3/4분기중 국내 IPO 시장은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로 중소형 기업의 상장이 증가하여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전분기대비 증가

- 동분기중 국내 IPO 거래규모는 1.1조원, 거래건수는 27건 기록
  - 전년동기대비 거래규모는 36.9%, 거래건수는 3.6% 감소
  - 전분기대비 거래규모와 거래건수는 각각 199.0%, 145.5% 증가
- 동분기 27건의 IPO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건, 코스닥시장에서 23건
- IPO 평균규모는 40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3억원 증가



□ 2018년 3/4분기중 상위 10개 IPO가 전체 시장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7개사 중 23개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 규모기준 1위는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1,920억원(공모기준가 12,000원)의 자금조달
- 규모기준 2위는 롯데정보통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1,277억원(공모기준가 29,800원)의 자금을 조달
- 하나제약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061억원(공모기준가 26,000원), 크리스에프앤씨가 코스닥시장에서 1,055억원(공모기준가 30,000원)을 조달하며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

상위 10개 국내 IPO 거래목록(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억원)

공시일	기업명 (업종)	상장 거래소	공모금액	주요 주관사
2018.06.25	티웨이항공 (항공)	유가증권시장	1,920	신한금융그룹, 대신증권
2018.06.20	롯데정보통신 (컴퓨터 서비스)	유가증권시장	1,277	미래에셋대우
2018.08.20	하나제약 (일반의약품)	유가증권시장	1,061	미래에셋대우
2018.08.16	크리스에프앤씨 (의류제조업)	코스닥	1,055	KB증권
2018.05.25	아이큐어 (화장품/생활용품)	코스닥	780	키움증권
2018.06.05	바이오솔루션 (생물의약품 및 유전자)	코스닥	432	NH 투자증권
2018.07.11	올릭스 (생물의약품 및 유전자)	코스닥	435	한국투자증권
2018.08.06	명성티엔에스 (일반산업용 기계)	코스닥	384	KB증권
2018.06.27	디아이티 (반도체)	코스닥	376	삼성증권
2018.08.21	푸드나무 (식품)	코스닥	373	미래에셋대우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중 IPO 주관사 순위에서는 신한알파리츠, 이리츠 코크렘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거래를 주관한 신한금융그룹과 NH투자증권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

- 미래에셋대우는 롯데정보통신, 하나제약, 푸드나무의 상장을 주관하여 전분기 5위에서 1위로 상승
- KB증권은 크리스에프앤씨, 명성티엔에스, 대유, 디지털캡의 상장을 주관하여 동분기 2위를 차지
- 엠코르셋, 에이피티씨, 지티지웰니스 등의 상장을 주관한 대신증권과 아이큐어, 액트로의 상장을 주관한 키움증권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며 10위권 이내로 진입

국내 IPO 주관사 순위(2018년 3/4분기 기준)

(단위: %, 억원, 건)

순위	자문사	시장 점유율	전분기		실적	거래 건수	가치	주요 거래
			순위	시장 점유율				
1	미래에셋대우	24.6	5	7.4	2,712	3	2,097	롯데정보통신, 하나제약, 푸드나무
2	KB증권	16.2	9	-	1,786	5	1,866	크리스에프앤씨, 명성티엔에스
3	대신증권	14.3	-	-	1,573	5	1,211	엠코르셋, 에이피티씨
4	키움증권	9.2	-	-	1,020	2	1,050	아이큐어
5	신한금융그룹	8.7	1	33.6	960	3	1,513	티웨이항공
6	한국투자증권	6.8	3	14.3	747	2	715	바이오솔루션
7	NH 투자증권	5.2	2	21.4	571	2	589	올릭스
8	신영증권	4.8	9	-	528	2	527	우진아이엔에스
9	삼성증권	4.6	9	-	506	2	509	디아이티
10	DB금융투자	2.5	6	6.3	270	1	281	한국유니온제약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연구위원 장정모 (02-3771-0621, changjm@kcmi.re.kr)

연구원 여밀림 (02-3771-0835, mlyeo@kcmi.re.kr)

M&A 및 IPO 주요 이슈: 주관사 자율성을 확대한 신규공모시장(IPO) 제도 개편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도 개편 및 사후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sup>1)</sup>
  - 대출 중심의 기업금융 시장과 상장기업 위주의 자본시장으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여전히 미흡
    - 2017년 미국 기업은 대출금 2.3조달러, 회사채 5.4조달러로 회사채의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대출금 814.4조원, 회사채 235.4조원으로 대출금의 비중이 높음
    - 증권사 및 운용사도 상장주식의 중개·투자 중심, 2017년 상장기업은 42조원 조달에 비해 비상장기업은 6,723억원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자금중개 역할이 부족
  - 선진국에 비해 기업당 투자금액이 적고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체계가 미흡
    - 2016년 연도별 건당 투자금액은 미국 141만달러, 중국 213만달러에 비해 우리나라는 16만달러에 그침
    - IPO 평균 소요기간은 14.3년으로 신규공모시장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평균 존속기간은 6.9년으로 이에 따른 투자공백이 생겨 초기 투자가 제한적
  -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
  - 상장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비상장 혁신기업에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이 과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차별화
  
- 주관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로 증권사의 역할이 강조된 점이 IPO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
  - 현재 거래소 주도의 IPO시장은 안정적인 재무성과인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혁신 및 신규기업의 상장에는 어려움이 존재

1) 금융위원회, 2018.11.1.,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보도자료

-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초가격 산정 및 신주배정에서 공적기관 심사의 최소화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주관사, 기관투자자, 거래소 역할을 재정비
  -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한편,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은 수요예측에서 배제 및 허수청약 방지를 위해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 검토
  -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sup>2)</sup>를 도입
- 현행 IPO과정에서의 사전적·원칙적 금지에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한적 허용 및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개편
  - 현행 제도에서 증권사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으나,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펀드 자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주관사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상향할 예정이며,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

□ 증권업계는 증권사의 자금 공급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체적인 부작용 방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평가

- 증권사 자율성 제고로 자본 효율성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증권사와 기업·투자자간 신뢰 및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혁신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수익 확대의 기회 마련
-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 정확한 공모가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리서치 역량이 필수
  -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차이나이즈월 운영이 필요
- 이해상충문제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에 내실을 기할 것

□ 향후 금융위원회는 세부 추진내용을 2019년 중 발표할 계획

- IPO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2019년 1분기중,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방안은 2019년 1월중 발표할 예정

2)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것